

### ◇한국경제구조의 이해와 합리적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시리즈 <3>

# 산업구조조정 필요인가?

## 한국산업구조의 현황과 성격

### I. 산업구조조정이란 무엇인가

최근 몇년 사이에 '산업구조조정'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용어가 되었다.

산업구조조정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면서 우리에게 보다 친숙한 용어들로서 '산업구조의 변동' 혹은 '산업구조고도화' 등이 있다. 이것들은 자본주의적 발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여러 산업들간의 양적 비율의 변화를 지칭하는 용어이다(본 시리즈의 첫호분을 참조). 그런데 현재 널리 논의되고 있는 산업구조조정은 두가지 점에서 이들과 구별된다.

첫째, '조정'이라는 말에서 느껴지듯이 이것은 단순히 경제구조 자체의 자연사적 변화과정이라기 보다는 주체적 의지와 실천을 내포하는 개념이다. 즉 산업구조조정은 주로 자본과 국가의 대응책 혹은 전략이라는 형태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구조조정은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것이므로, 국가의 정책이 극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할 것이다. 실제로 산업구조조정과 산업구조조정정책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둘째, 현재의 '산업구조조정'은 총생산 혹은 총수출가운데서 어떤 전략산업이 차지하는 양적 비율을 높이는 것(이것을 편익상 산업구조의 양적 고도화라고 부르자. 산업구조고도화의 일반적 의미는 바로 이것을 가리킨다)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70년대의 중화학공업화를 통해 고도화된 산업구조의 질적 심화야말로 현재의 산업구조조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즉 70년대식의 양적 고도화에 대비되는 산업구조의 질적 고도화, 혹은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 II. 산업구조조정의 배경과 전개과정

현대 산업구조조정은 70년대 말~80년대초 구조적 위기와외의 관련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80년대의 산업구조조정의 계기는 중화학공업화로 표상되는 70년대의 자본축적과정이 야기한 산업구조의 모순구조 속에서 찾아진다. 즉 한편으로 조립, 가공

위주의 수출구조는 소재, 부품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였고 또한 그 기저를 이루는 중소기업의 낙후성을 초래하였다. 결국 이것은 독점대자본의 국제경쟁력 유지, 강화에 심각한 장애로 대두되었다. 결국 독점대자본과 중소기업간의 수직적 분업관계의 심화를 통한 국내분업관계의 제고라는 과제가 제기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70년대 말 한국자본주의의 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세계경제의 장기불황과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는 기술중심의 새로운 국제분업체계의 재편이라는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저임금에 기초한 후발개도국의 추격과 선진국에서 가속화되는 기술혁신은 국제분업구조 속에서 한국자본주의의 존립근거를 위협하는 것이었다. 결국 이는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구조의 질적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핵심적 과제로 제기했던 것이다.

이후 1980년대 전반기 70년대와 상대적으로 구별되는 산업구조조정의 지속적 확대·강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80년대의 산업구조조정'이 갖는 이러한 연속성이 곧바로 단선적 직선운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순환적 경기변동을 비롯한 제요인들은 구조조정의 불균등한 전개를 불가피하게 한다. 1980년대 초의 경기침체기에 중화학투자자중과 같은 응용조치들, 그리고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을 해체하기 위한 안정화정책으로 대별되는 일련의 구조조정과정에 속하여 산업구조의 질적 심화와 합리화를 내용으로 하는 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후 3저회항은 한편에서는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경제적 여유를 마련해주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물론 3저회항은 80년대초의 구조조정과정을 일정한 내적 기반으로 갖지만 동시에 외적 조건의 때어난 호전에 힘입은 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구조조정의 한 축을 이루는 부품·소재 국산화를 저지하는 모순적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다(인플레이션에 의한 국산화유인의 감소).

1987년 이후의 노동자계급의 진출과 원화절상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조정에 강제성과 탄성을 부여함으로써 산업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임금상승과 원화절상에 의한 한계기업 혹은 산업의

구조조정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80년대 산업구조조정의 현황을 ①구조불황·사양산업의 합리화, ②성장·성숙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③첨단기술산업의 육성이라는 세 측면으로 나누어 간략히 살펴보자.

### 1. 구조불황·사양산업의 합리화

이분야의 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공업발전법에 의거한 소위 '경쟁력 상실분야'에 대한 합리화업종 지정제도와 조세감면규제법에

출이라는 측면보다는 시설·설비 합리화, 기술개발 및 신제품개발 촉진 등 고부가가치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기존산업의 내포적 합리화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선진국의 사양산업정책이 구산업의 사실상 폐기를 내용으로 하는 '적극적 구조조정'이 추구를 이루는 것과는 좋은 대조가 된다.

### 2. 성장·성숙산업의 합리화

앞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80년대 산업구조조정은 기존 주력산업의 내포적 합리화에 그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그 핵심내용은 전술한 70년대 자본축적구조의 계층성에 대한 국가와 사회적 대의 대응전략으로서 중소기업의 육성과 기술개발의 촉진이다.

### 중소기업의 육성

주지하듯이 1970년대에는 사회적 자본(특히 독점대자본의 주요 축적영역) 자체가 조립가공산업 중심이었고, 또한 실제 70년대의 고도성장과정에서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는 물론 절대적인 약화·몰락의 길을 걸어왔다. 중소기업의 육성과 관련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 역시 극히 단편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사회정책적 차원'이 아닌 경제정책적 차원에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중소

기업으로 육성하고 전문화를 유도하여 대기업과의 상호보완적 분업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성장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정책이 대폭 강화되었다. 이는 부품·소재부문을 담당할 중소기업부분의 낙후로 국제경쟁력의 저하를 강요받던 독점대자본의 축적논리의 반영이었다. 결국 하청제도와 추진과 부품·소재 및 기계류의 국산화가 골간이 되며, 이를 뒷받침할 중소기업의 토대와 경제체질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창업인과 구조고도사업(근대화, 협동화, 유망중소기업지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크게 확대되었다.

1980년대 하청제도와 부품·소재 국산화의 급속한 진전은 기존 조립가공형 중화학공업의 생산수단 수입체제를 통해 수입의 준도를 감소시키고 중화학 내부의 조립가공부분과 부품·소재부분간의 국내분업관계를 증대시킨다. 그 결과 국내 대·중소기업간의 내포적 합리화에 크게 계고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사실·설비 합리화, 기술개발 및 신제품개발 촉진 등 고부가가치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기존산업의 내포적 합리화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선진국의 사양산업정책이 구산업의 사실상 폐기를 내용으로 하는 '적극적 구조조정'이 추구를 이루는 것과는 좋은 대조가 된다.

그러나 이상의 논의가 기술자립화로 이루어지는 안된다. 즉 기술개발의 확대와 동시에 기술도입도 매우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또한 해외기술의존도(로얄티·기술료·R&D투자) 역시 약간의 하락 추세를 보이기 시작한 정도는 미미하다. 이는 기술개발과 기술도입을 무언가 상반되는 별개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일부 시각의 편향을 드러내준다. 현대 한국자본주의에서 연구개발 활동은 독창적인 개발활동이라기 보다는 외국기술을 소화·흡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연구개발과 기술도입은 오히려 상호보완적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국가정책이나 사회적 자본의 정책적인 등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향후의 연구와 논의는 기술중심이나 기술자립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지양하고, 현

에 높은 고용증가를 유발함으로써 산업구조를 원활하게 하며 동시에 기존 주력산업의 가공도를 심화하고 생산을 고도화함으로써 고부가가치화와 합리화를 촉진시킨다. 결국 현대 한국자본주의에서 첨단산업이 갖는 의미는 새로운 독자적 산업으로의 기술적 파급효과에 있다. 축적영역의 외연적 확대보다는 기존산업의 내포적 합리화 촉진에 보다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이 변화되는 것은 적어도 90년대 중·후반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다.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첨단기술산업이 갖는 몇가지 특성들, 예컨대 규모에 관계, 위험분산의 필요성, 첨단기술의 연계성으로 인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 등을 근거로 첨단산업의 육성은 개별을 중심으로 개별별 분업이라는 형태로 추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IV. 산업구조조정의 성격과 함의

첫째, 현대의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대·중소기업간 분업관계와 국내분업관계가 크게 계고되었다는 사실은 승인되어야 한다. 이것의 의미는 국민경제의 독점대자본의 전일적 지배의 확대·강화에 따른다.

둘째, 노동자계급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한계기업의 도태와 업종전환에 따른 고용문제이다. 최근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자동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최근 논의되는 허구적인 고용보장제를 넘어서서 고용안정과 철저한 직업훈련 등을 획득해 내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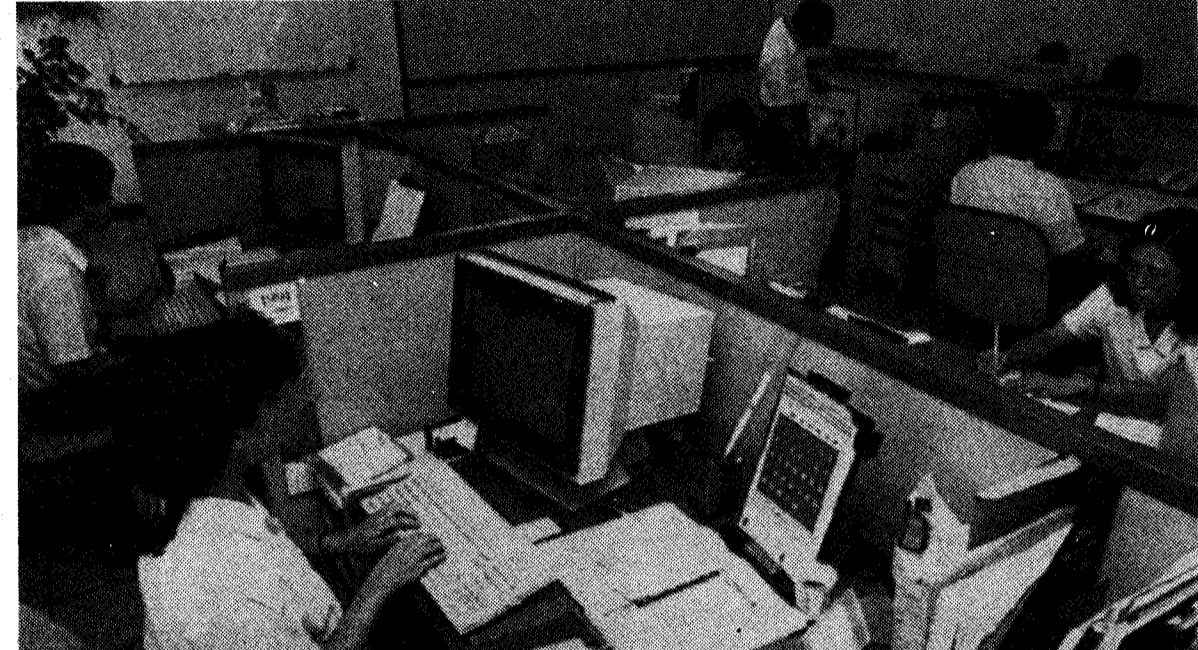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한국자본주의의 중추성-개량화논의와 관련지어 보면, 산업구조 조정은 분명히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제분업체제의 강화된 편입을 주요 목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실이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전체 민중에 확산되리라는 전제는 갖기 어렵다. 그러나 중추성-개량화논의는 논외로 선취적으로 지적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산업구조조정과정은 우리에게 중추성의 문제와 개량화의 문제를 단선적으로 연결시키는, 기존의 문제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시사해준다.

개량화 문제의 핵심은 인력유출이나 자본의 자립능력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노동자계급에 대한 양보를 제생산의 중요한 고리로서 갖는 그러한 축적구조 혹은 축적논리가 형성되는가 하는 문제에 있다. 이는 우리에게 산업구조조정을 포괄하는 80년대 전반에 걸친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조정과정(경제안정화정책, 대외개방, 민영화와 경제자유화)을 총체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을 가리켜 준다.

### 3. 첨단기술산업의 육성

첨단기술산업의 육성은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논의가 시작되었고 아직까지는 정책에서나 축적과정에서나 본격화되고 있지 못하다. 여기서는 이제까지 논의된 정책방향을 간략히 정리하는데 그친다.

산업구조조정에 관련한 첨단산업의 역할은 그 자체로서 산업구조고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의 효율적 조정을 가능케하는 기반으로서 규정되고 있다. 즉 첨단기술산업은 관련산업



◇80년대 산업구조조정의 핵심은 구조고도화정책(기술개발)과 조립가공형 중화학공업의 합리화이다.

## 고질적 인플레이구조 해체위한 경제안정화 정책 추진 사무자동화 및 사양산업 업종전화로 고용문제 심화

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 III. 산업구조조정의 현황

이렇게 본다면 1980년대의 산업구조조정의 핵심은 한마디로 '구조고도화정책'으로부터 구조합리화정책으로의 전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구산업(구조불황산업 혹은 사양산업)의 퇴출과 신산업(유망유치산업 혹은 첨단산업)의 도입·육성이라는 협의의 산업구조조정을 포함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기존 주도산업의 내포적·질적 합리화(그 핵심은 기술혁신과 수직적 국내분업관계 확대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이다)에 초점이 두어진다. 이는 사양산업의 처리와 첨단산업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진국의 산업

근거한 사업전환지원체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구조불황산업은 '산업구조의 변화 등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로 사업자의 경영규모, 생산규모 또는 생산방법의 부적당한 상태가 장기간 계속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서 그 상태를 극복하는 것이 공업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 규정될 수 있다. 합리화업종으로 지정되면 한시적인 업종별 합리화계획이 수립되고 각종 금융·세제상의 지원이 제공된다. 예로서는 비료, 염색, 직물(1.2차) 합금철 등 4개업종이 있는데, 현재는 직물2차(89.7~92.6)만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 합리화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달리 업종전환 등 '구산업의 퇴

중심을 두고 있다. 그 핵심내용은 전술한 70년대 자본축적구조의 계층성에 대한 국가와 사회적 대의 대응전략으로서 중소기업의 육성과 기술개발의 촉진이다.

### 중소기업의 육성

주지하듯이 1970년대에는 사회적 자본(특히 독점대자본의 주요 축적영역) 자체가 조립가공산업 중심이었고, 또한 실제 70년대의 고도성장과정에서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는 물론 절대적인 약화·몰락의 길을 걸어왔다. 중소기업의 육성과 관련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 역시 극히 단편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사회정책적 차원'이 아닌 경제정책적 차원에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중소

이것은 국내독점대자본의 부종조달 과정이 '초국적자본에 의한 피지배'에서 '중소자본에 대한 지배'로 부분적으로나마 전환되었음을 시사하며, 동시에 이는 독점대자본에 의한 비독점자본의 지배·포섭을 통한 '독점대자본 지배'의 계급적 통일성의 확보·강화를 의미한다.

### 기술개발지원

1980년대초 산업정책 전환의 핵심적 내용이 바로 특정산업 위주의 산업별 지원에서 기능별(인력개발, 기술개발)지원으로의 전환이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초반에 세계·금융 양 측면 모두에서 기술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기본 구도가 정비되었고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왔다.

이것은 국내독점대자본의 부종조달 과정이 '초국적자본에 의한 피지배'에서 '중소자본에 대한 지배'로 부분적으로나마 전환되었음을 시사하며, 동시에 이는 독점대자본에 의한 비독점자본의 지배·포섭을 통한 '독점대자본 지배'의 계급적 통일성의 확보·강화를 의미한다.

### 기술개발지원

1980년대초 산업정책 전환의 핵심적 내용이 바로 특정산업 위주의 산업별 지원에서 기능별(인력개발, 기술개발)지원으로의 전환이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초반에 세계·금융 양 측면 모두에서 기술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기본 구도가 정비되었고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왔다.

산업구조조정에 관련한 첨단산업의 역할은 그 자체로서 산업구조고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의 효율적 조정을 가능케하는 기반으로서 규정되고 있다. 즉 첨단기술산업은 관련산업

## 무한대의 첨단 자동차기술에 도전하는 사람들 - 자동차 한국의 꿈을 펼쳐갑니다.

미래 자동차기술의 이정표를 세운다.  
현대 마복리연구소 연구부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자동차는 없을까?  
상당한 내용이 풍기는 무공해 연료가 있으면  
좋을텐데...  
음속을 초월하는 초고속 자동차는 언제쯤 볼 수  
있을까?  
가장 이상적인 미래의 자동차는 어떤 모습일까?  
이땅에 인간의 행복과 풍요로운 생활을 열어간다는  
보람과 자부심으로 늦은 밤까지 불을 밝히는  
현대 마복리연구소 사람들 -  
이들이 바로 꿈속에서도 태산처럼 수많은  
연구과제를 하나, 둘 풀어가며 자동차 한국의  
꿈을 펼쳐가는 사람들입니다.



자동차 한국의 내일을 밝히는  
연구소의 불빛 -

인체공학과 첨단 기술의 조화로 이상적인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마복리연구소 연구부 -  
이곳의 연구는 크게 4부문에 나누어집니다.  
① 엔진의 성능 향상과 수송, 알콜 등 대체연료의  
개발을 담당하는 열역학부 ② 엔진 경량화,  
저소음 무공해를 연구하는 구조해석부 ③ 연료분사,  
점화시각의 전자 제어 시스템을 연구하는 전자부  
④ 플라스틱, 세라믹 등 초경량, 고강성의 신소재 개발과  
적용가능성을 탐색하는 재료부에서 새롭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래의 자동차, 꿈의 자동차 시대를  
앞당겨 가는 연구소의 불빛은 자못 밝고 있습니다.

은 미래를 창조해갈  
역사의 참주인은 바로 그대 -

지금의 인간의 행복과 후손에게 물려줄 풍요로운  
내일을 힘 모아 창조해 갈 때입니다.  
진리의 길에서도 자칫 편견이나 오류에 빠지지  
않는 지 깊은 성찰과 반성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단점을 위대한 장점으로 바꿀 줄 아는 젊은이 -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기 전에 상대방의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여러분은 역사의 참주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며, 미래를 꿈꾸며  
현대자동차가 밝은 내일을 추구해갑니다.

